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재고/소비

■ 고용 취업자/실업자/물가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가격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제조업생산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은 지난해 6월 대비 17.6% 증가하고, 생산자 제품재고도 9.0% 증가하여 두 부문 모두 지난 3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6월 대비 8.8% 증가하였으나, 백화점부문(13.0%), 대형마트부문(3.3%)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7월 대비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중 서울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대비 0.1%(6천명) 증가한 4,914천명이며,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율(1.1%)보다는 1.0%p 낮음 - 7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4.2%로 지난해 7월 대비 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 이후 5년간 7월 평균실업률 4.4% 보다 0.2%p 낮은 수준임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지난 6월 대비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중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광열·수도(2.4%), 교통·통신(0.3%) 등의 상승에 기인함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채 유통수익률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중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월 초반 콜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월 후반에는 국제정세의 불안, 국내외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하락하여 7월말 현재 4.83%를 기록함 ○ 7월중 KOSPI 지수 주춤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중 KOSPI 지수는 북한 미사일 발사, 국제유가 최고가 경신,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월 중반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은행업종을 비롯한 일부 기업의 실적개선이 발표되면서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7월말 현재 지난 6월 대비 0.20% 증가한 1,297.8로 마감함 ○ 원/달러 환율 지난 6월 대비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중 원/달러 환율은 중동지역의 불안 고조에 따른 달러화 선호 등으로 월 중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7월말 현재 955.2원을 기록함 ○ 서울의 신설법인 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54개로 지난 6월 대비 14.0%(237개) 감소하고, 전국 대비 비중은 38.0%로 나타남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액 지난해 6월 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6월 대비 105.1%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14.8%를 차지함 - 6월중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6월 대비 서울은 101.2% (전국:-7.7%) 증가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3%로 지난 6월 대비 0.4%p 하락하였으며, 강북지역의 상승률(0.4%)이 강남지역 상승률(0.3%)을 0.1%p 상회함 - 7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6월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2006년 3월 이후 상승폭(3월:1.2%, 4월: 0.8%, 5월:0.5%) 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생 · 산 |

서울 제조업 부문 산업생산 3개월 연속 평균 16.0% 증가

- 전국 산업생산 지난해 6월 대비 10% 대의 높은 증가세 유지
 - 2006년 6월중 전국의 산업생산의 증가율은 지난해 6월 대비 10.9% 증가를 기록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부문별로는 자동차 부문은 부분과업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 차질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상당 폭 둔화되었지만, 반도체 부문의 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생산의 호조를 주도함

- 서울 제조업 부문 산업생산 5월 이후 두 자리 증가율 유지
 - 2006년 6월중 서울 제조업 부문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6월 대비 17.6% 증가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함
 - 이는 신기술 생산에 따른 조립금속(817.0%) 부문의 철제문 생산이 크게 증가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서울 중공업부분 3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율 지속
 - 산업부문별로는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6월 대비 51.3%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3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유지됨
 - 세부업종별로 컴퓨터 및 사무기기(-45.0%) 등이 감소한 반면, 조립금속(817.0%), 기타 기계 및 장비(23.2%) 등이 증가함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6월 대비 1.6% 증가하여 지난 5월(3.5%)에 비해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가 감소함
 - 세부업종별로 의복 및 모피(4.6%), 인쇄출판(2.7%) 등이 증가한 반면, 가구 및 기타제품(-8.4%) 등은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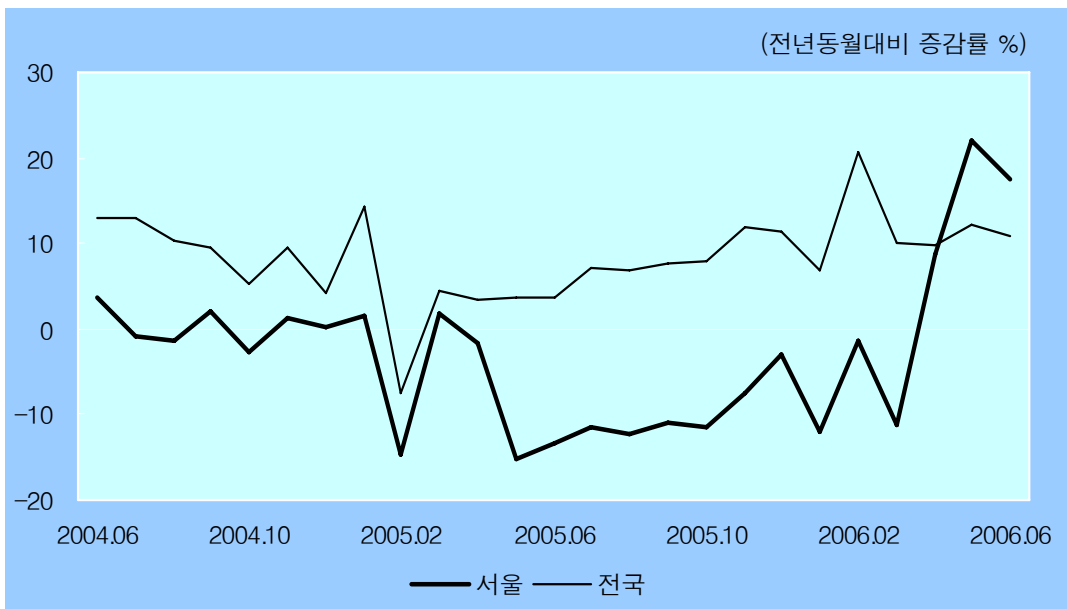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전년동월비	전국	3.7 (1.9)	20.6 (-4.4)	10.0 (0.9)	9.6 (-1.1)	12.1 (1.8)	10.9 (1.2)
	서울 (제조업)	-13.4 (-0.9)	-1.3 (-5.9)	-11.3 (18.6)	8.6 (13.6)	21.9 (-2.6)	17.6 (-4.4)
	중공업	-26.9 (6.4)	-20.9 (2.6)	-41.5 (14.4)	21.1 (73.2)	64.5 (-6.1)	51.3 (-2.2)
	경공업	-5.2 (-4.1)	9.6 (-8.5)	10.4 (20.3)	1.3 (-9.0)	3.5 (-0.3)	1.6 (-5.9)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재 · 고 |

서울 제조업 생산자 제품재고 4월 이후 증가세 확대

-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 지난 2월 이후 증가세 확대
 - 2006년 6월중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6월 대비 7.6%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난 2월(2.6%)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부문별로 반도체·IT 부문의 재고가 빠른 속도로 확대(2006년 4월:16.8% → 5월:29.1% → 6월:40.9%)되면서 재고증가율의 상승을 주도함

- 서울 제조업 부문 생산자 제품재고 3개월 연속 증가세 확대
 - 2006년 6월중 서울 제조업 부문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6월 대비 9.0%의 증가율을 보이며 3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됨
 - 이는 제1차금속인 칼라강관()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음식료품, 의복 및 모피, 가죽·가방 및 신발,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한데에 기인함

- 서울 중공업부문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세 지속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6월 대비 6.4%의 감소율을 보이며 감소세를 지속함
 -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39.8%)가 증가한 반면, 제1차금속(-65.7%) 등은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6월 대비 1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지난 5월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10.1%) 보다 증가폭이 확대됨
 - 세부업종별로 가죽·가방 및 신발(80.1%), 음식료품(42.7%), 섬유제품(14.2%), 의복 및 모피(7.6%) 등이 증가함

〈표〉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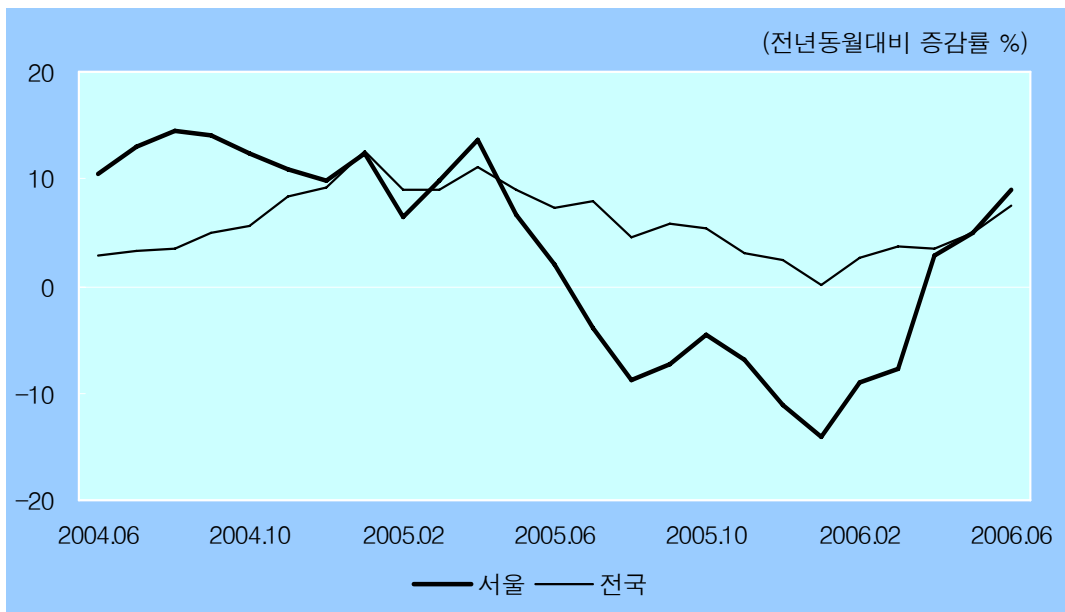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전년동월비	전국	7.2 (-1.8)	2.6 (1.0)	3.7 (2.3)	3.5 (0.7)	4.9 (2.0)	7.6 (0.7)
	서울 (제조업)	2.0 (-1.3)	-9.1 (-0.8)	-7.7 (3.1)	2.9 (2.7)	4.9 (1.9)	9.0 (2.6)
	중공업	-24.2 (3.2)	-38.1 (1.5)	-38.1 (-2.3)	-16.3 (1.5)	-4.5 (-0.2)	-6.4 (1.1)
	경공업	15.4 (-2.7)	6.6 (-1.4)	7.9 (4.7)	10.1 (3.0)	7.8 (2.5)	14.2 (3.0)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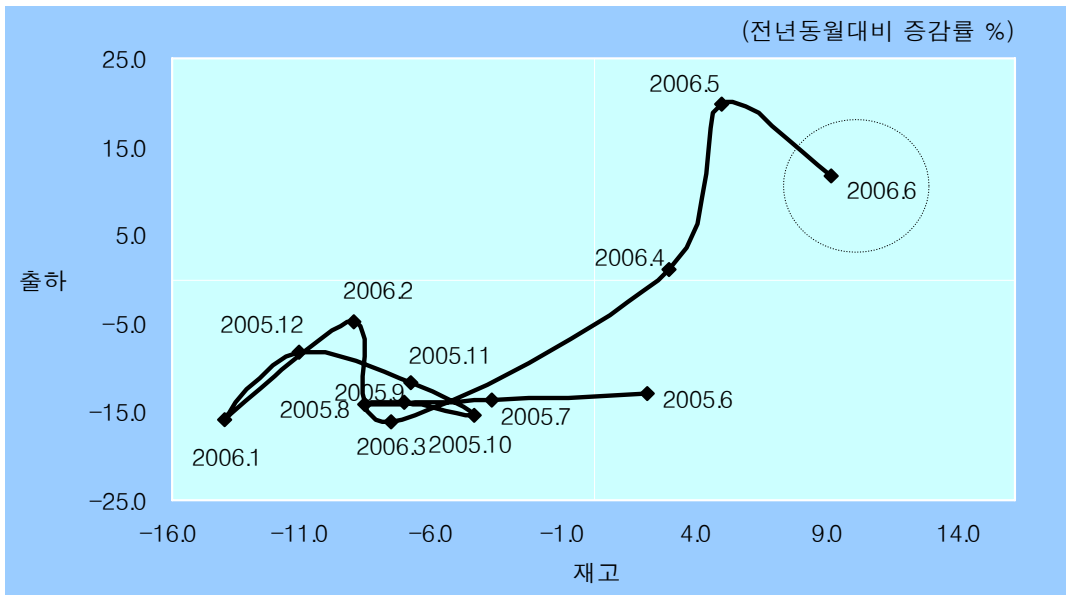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 제조업 부문 재고누증의 양상을 나타냄

■ 서울 제조업 부문 재고 증가세 확대, 출하 증가세 둔화

- 2006년 6월중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재고 증가세의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하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지난해 6월 대비 11.8% 증가하여 지난 5월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19.9%) 보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지난해 6월 대비 9.0%의 증가율로 재고증가세가 확대됨
- 2006년 6월은 출하·재고 상황을 볼 때, 전체적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출하가 감소하여 재고누증 단계(<Box> 참조)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	재고 ↓	재고 ↑	재고 ↑
출하 ↓	출하 ↑	출하 ↑	출하 ↓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 부문 재고율 증가세 지속

- 2006년 6월중 전국의 재고율은 96.3%를 기록하여 지난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서울 제조업 부문의 재고율은 147.1%로 지난 5월 대비 큰 폭 상승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83.3%로 3개월 연속 100%을 하회하고 있으며
- 경공업부문은 187.2%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며 100%를 크게 상회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재고율	전국	96.9	93.0	95.1	96.3	96.8	96.3
	서울 (제조업)	150.9	160.0	144.7	131.2	136.4	147.1
	중공업	122.5	137.0	122.9	75.1	78.0	83.3
	경공업	162.9	167.8	151.6	167.9	173.5	187.2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둔화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소폭 둔화

- 2006년 6월중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6월 대비 7.4% 증가한 3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남
- 가전제품, 음식료품 등의 판매 증가로 지난해 6월 대비 백화점부문에서는 4.6% 증가하고, 대형마트(할인점)에서는 7.1% 증가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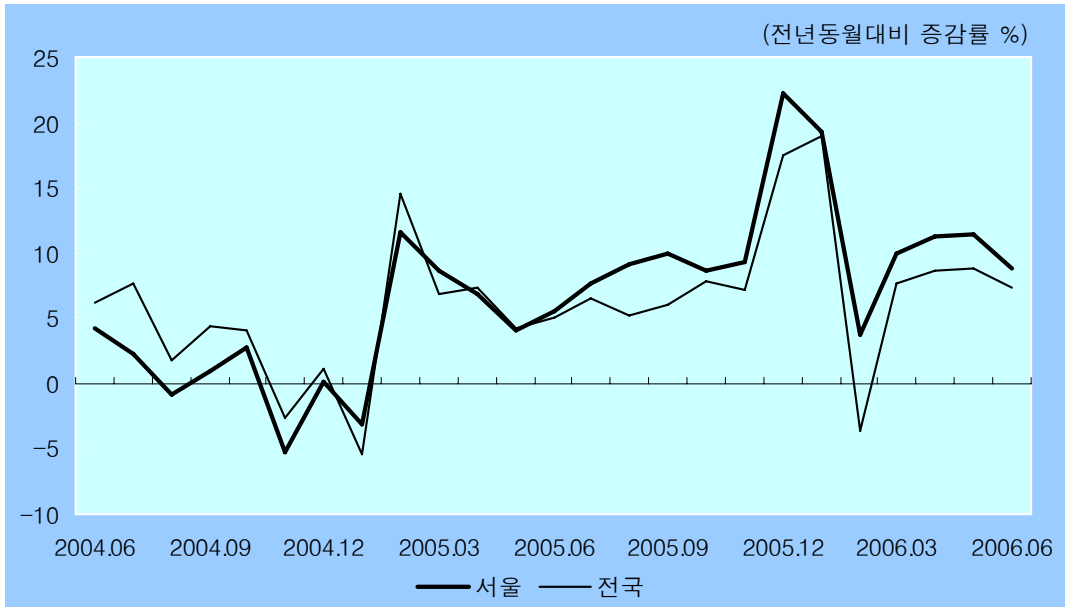
- 2006년 6월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6월 대비 8.8% 증가한 1조 1천억 원으로 대형마트(할인점)에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백화점부문의 경우 월드컵 특수로 인한 가전제품판매 증가와 의복, 신발 등의 판매호조로 지난해 6월 대비 13.0%의 증가함
- 대형마트(할인점)부문의 경우 신규 대형마트의 증가로 지난해 6월 대비 3.3% 증가함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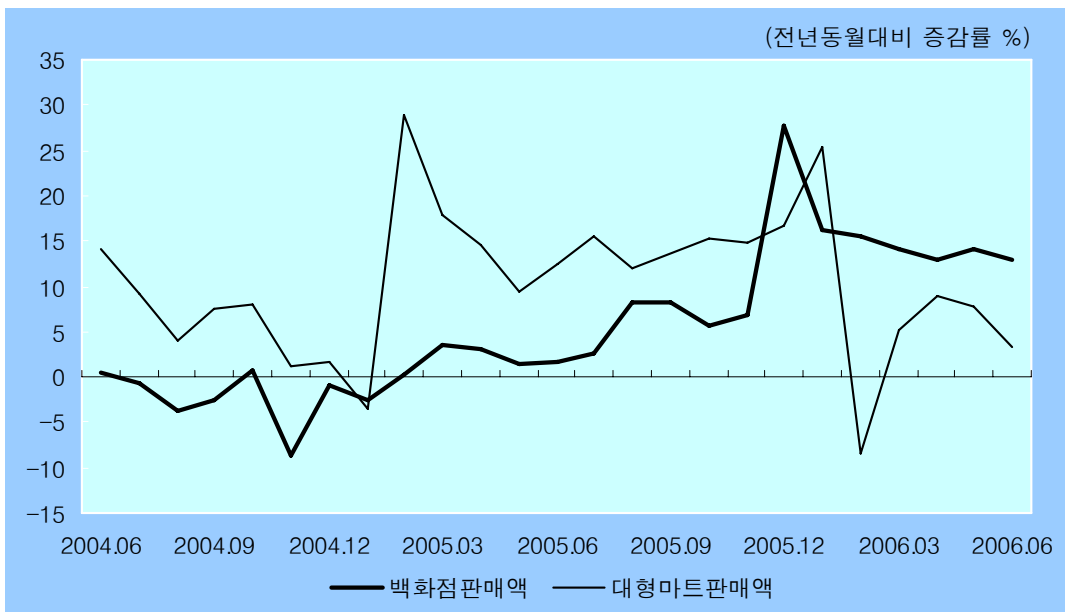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판매액	전국	3,126 (5.1)	3,233 (-3.6)	3,543 (7.7)	3,669 (8.7)	3,711 (8.8)	3,357 (7.4)
	서울	1,034 (5.6)	1,074 (3.8)	1,214 (10.0)	1,272 (11.3)	1,252 (11.5)	1,125 (8.8)
	백화점	549 (1.6)	609 (15.6)	703 (14.2)	761 (12.9)	723 (14.1)	620 (13.0)
	대형마트 (할인점)	456 (12.5)	432 (-8.4)	470 (5.2)	479 (8.9)	497 (7.8)	474 (3.3)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취 · 업 · 자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7월 대비 0.1% 증가

■ 전국의 취업자 수 지난해 7월 대비 소폭 증가

- 2006년 7월중 전국의 취업자는 23,447천명으로 지난해 7월 대비 1.1%(263천명)가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대비 4.1%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3.8% 증가함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7월 대비 0.1% 증가

- 2006년 7월중 서울의 취업자는 4,914천명으로 지난해 7월 대비 0.1%(6천명) 증가함
-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율에 비해 1.0%p 낮은 수준으로 지난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률이 전국대비 0.9%p~1.1%p 낮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4%(2,840천명), 여자는 42.6%(2,074천명)로 지난해 7월 대비 남자는 0.7%(20천명) 증가한 반면에 여자는 0.7%(14천명) 감소함
- 이러한 현상은 여성 취업자 수 증가율이 남성 취업자 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최근의 추세와 역전됨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1.9%로서 지난해 7월에 비해 5.8%(-66천명)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전체 취업자의 13.9%로 4.6%(30천명) 증가함
-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 6월에 비해 0.1%p 더 감소하였으며 전국에 비해서는 1.7%p 더 많이 감소하여 전국과의 차(5월; 0.1%p, 6월 0.8%p)가 점차 확대됨
- 고령층 취업자는 지난 4월에 이어 꾸준히 증가폭이 확대되어 지난 6월에 비해 1.4%p 증가하였으며 전국에 비해 0.8%p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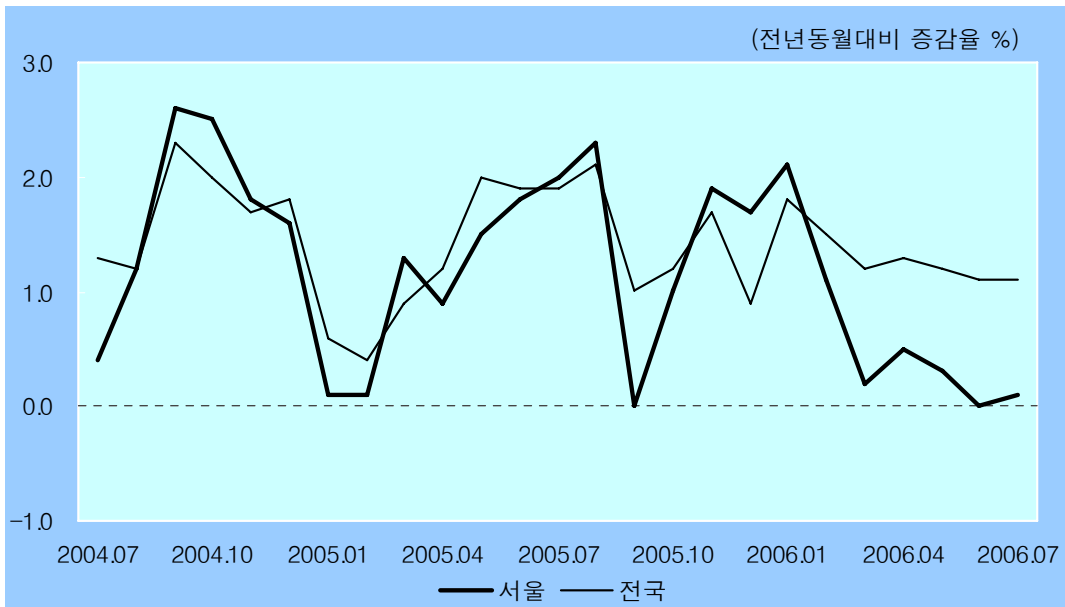
〈표〉 2006년 7월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취업자	전국	1.9 (-0.3)	1.5 (-0.3)	1.2 (1.9)	1.3 (1.7)	1.2 (1.0)	1.1 (0.1)	1.1 (-0.2)	
	서울	2.0 (-0.6)	1.1 (-0.7)	0.2 (0.4)	0.5 (0.7)	0.3 (0.2)	0.0 (0.2)	0.1 (-0.5)	
	성별	남자	1.4 (-0.7)	-0.3 (-0.6)	-0.2 (1.4)	-0.3 (0.0)	0.1 (0.5)	-0.4 (-0.5)	0.7 (0.4)
		여자	2.7 (-0.4)	3.2 (-0.9)	0.7 (-0.9)	1.7 (1.7)	0.6 (-0.2)	0.6 (1.1)	-0.7 (-1.7)
청년층 취업자	전국	-2.8 (2.5)	-4.6 (-2.7)	-4.8 (-1.3)	-4.4 (0.3)	-4.6 (0.7)	-4.9 (-0.8)	-4.1 (3.3)	
	서울	-1.7 (1.2)	-4.6 (-2.1)	-5.7 (-0.9)	-6.4 (-1.2)	-4.5 (0.4)	-5.7 (-1.0)	-5.8 (1.1)	
고령층 취업자	전국	7.1 (-2.2)	3.7 (1.0)	4.2 (8.1)	3.1 (4.9)	4.0 (3.3)	3.9 (1.1)	3.8 (-2.3)	
	서울	3.4 (-3.8)	4.2 (-0.9)	3.4 (2.6)	1.6 (1.6)	2.4 (0.6)	3.2 (1.4)	4.6 (-2.5)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

- 2006년 7월중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 29.2%, 제조업 15.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8%, 건설업 8.5%임
- 지난해 7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6%), 전기·운수·통신·금융업(1.5%), 도소매·음식숙박업(1.3%)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4.9%), 건설업(-2.2%)은 감소함
-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전국적으로 감소(-0.6%)한 반면에 서울에서는 증가 경향이 나타남
-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5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전문·기술·행정관리자 및 사무종사자 취업자 수 증가

- 2006년 7월중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0.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9.1%, 서비스·판매 종사자 25.3%, 사무종사자 15.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1%임
- 지난해 7월 대비 전문·기술·행정관리자(1.8%), 사무종사자(1.0%)는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숙련종사자(-6.5%), 서비스·판매 종사자(-1.4%),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0.7%)는 감소함

■ 임금근로자 수 증가

- 2006년 7월중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3.9%, 비임금근로자는 26.1%로 지난 6월에 비해 임금근로자는 1.7%p, 비임금근로자는 1.5%p 감소함
- 지난해 7월 대비 임금근로자는 1.6%(59천명)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3.9%(-53천명)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5.1%(83천명), 일용근로자 1.6%(9천명)가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2.4%(-33천명)감소함
- 비임금근로자의 84.4%를 차지하는 자영업주는 4.8%(-55천명)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4%(3천명)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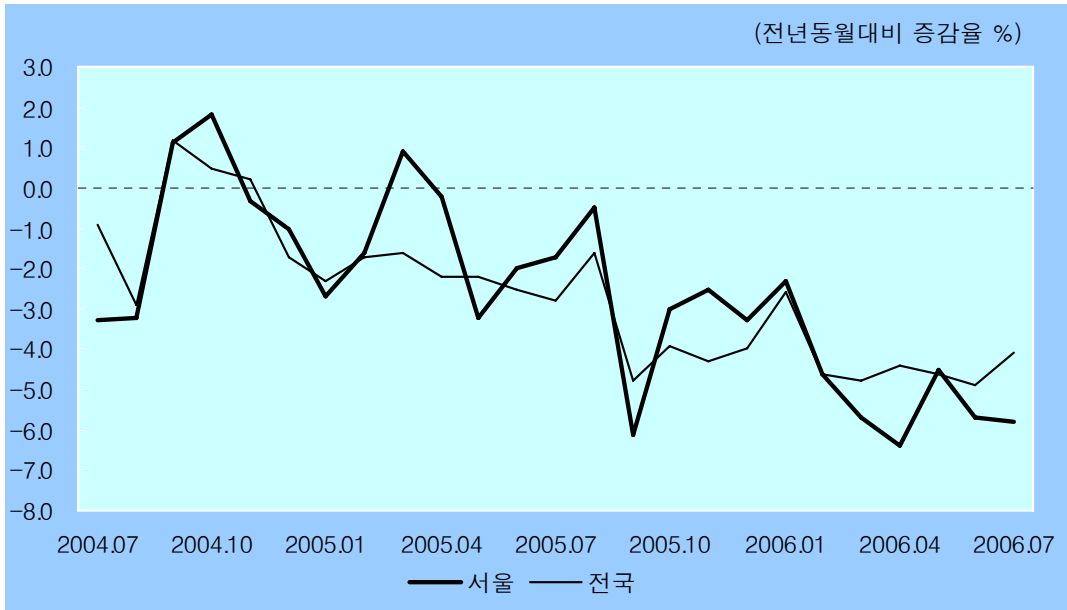
〈표〉 2006년 7월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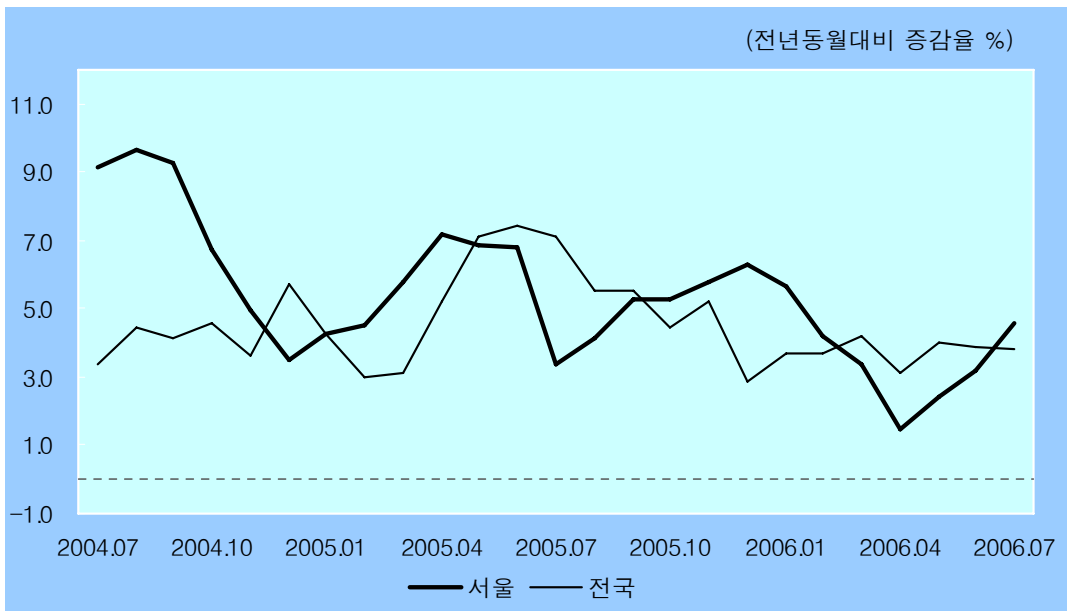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 별 취 업 자	광공업	-1.9 (-0.7)	-3.4 (1.2)	-4.6 (2.0)	-7.0 (-3.1)	-5.4 (0.4)	-7.9 (-2.5)	-4.9 (2.4)	
	· 제조업	-1.9 (-0.8)	-3.4 (1.2)	-4.6 (2.0)	-7.0 (-3.1)	-5.4 (0.4)	-7.9 (-2.5)	-4.9 (2.4)	
	SOC 및 기타서비스업	2.7 (-0.5)	2.0 (-1.1)	1.0 (0.2)	2.0 (1.4)	1.4 (0.2)	1.4 (0.6)	1.1 (-0.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4 (0.4)	4.4 (-0.5)	3.5 (0.4)	4.8 (2.1)	2.3 (-0.9)	3.7 (1.4)	1.6 (-1.6)	
	· 도소매·음식숙박	0.8 (-0.5)	-0.6 (-1.2)	-1.7 (-0.8)	-0.4 (0.0)	0.4 (0.8)	1.1 (1.7)	1.3 (-0.4)	
	· 전기·운수·통신·금융	0.0 (-0.7)	0.6 (-1.8)	-1.8 (-2.1)	-1.6 (0.8)	1.4 (2.3)	-0.8 (-2.1)	1.5 (1.6)	
	· 건설업	6.1 (-4.2)	2.7 (-2.0)	4.1 (5.7)	2.9 (3.4)	0.8 (-0.1)	-3.7 (-2.8)	-2.2 (-2.6)	
	직업 별 취 업 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5 (0.0)	-0.7 (-0.4)	1.5 (2.1)	4.4 (1.8)	3.5 (-0.5)	2.3 (-0.2)	1.8 (-0.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6.0 (-0.7)	2.0 (-0.9)	-0.1 (2.2)	2.0 (2.5)	2.1 (0.9)	-3.4 (-4.0)	-0.7 (2.1)
		서비스·판매종사자	1.4 (-0.8)	-0.7 (-0.7)	-2.0 (-1.2)	-3.7 (-1.4)	-5.2 (-1.3)	2.4 (8.2)	-1.4 (-4.5)
사무종사자		-4.7 (-1.0)	5.9 (-1.1)	1.7 (-2.9)	-2.5 (-1.3)	0.2 (2.8)	-2.1 (-3.7)	1.0 (2.2)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24.6 (24.3)	63.0 (-2.2)	33.3 (-18.2)	37.8 (41.7)	13.2 (-15.7)	81.1 (55.8)	-6.5 (-35.8)	
종 사 상 지 위 별	임금근로자	3.7 (0.1)	2.9 (-0.6)	2.4 (1.0)	1.6 (0.8)	1.8 (0.9)	-0.1 (-1.4)	1.6 (1.8)	
	비임금근로자	-2.4 (-2.2)	-3.2 (-1.2)	-5.2 (-1.0)	-2.1 (0.5)	-3.7 (-1.6)	0.2 (4.5)	-3.9 (-6.3)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실 · 업 · 률 |

서울의 실업률 4.2%로 지난해 7월 대비 0.4%p 감소

■ 전국의 실업률 소폭 하락

- 2006년 7월중 전국의 실업률은 3.4%로 지난해 7월 대비 0.3%p 하락하였으며 2000년 이후 7월의 평균 실업률 3.6% 보다 0.2%p 낮음

■ 서울의 실업률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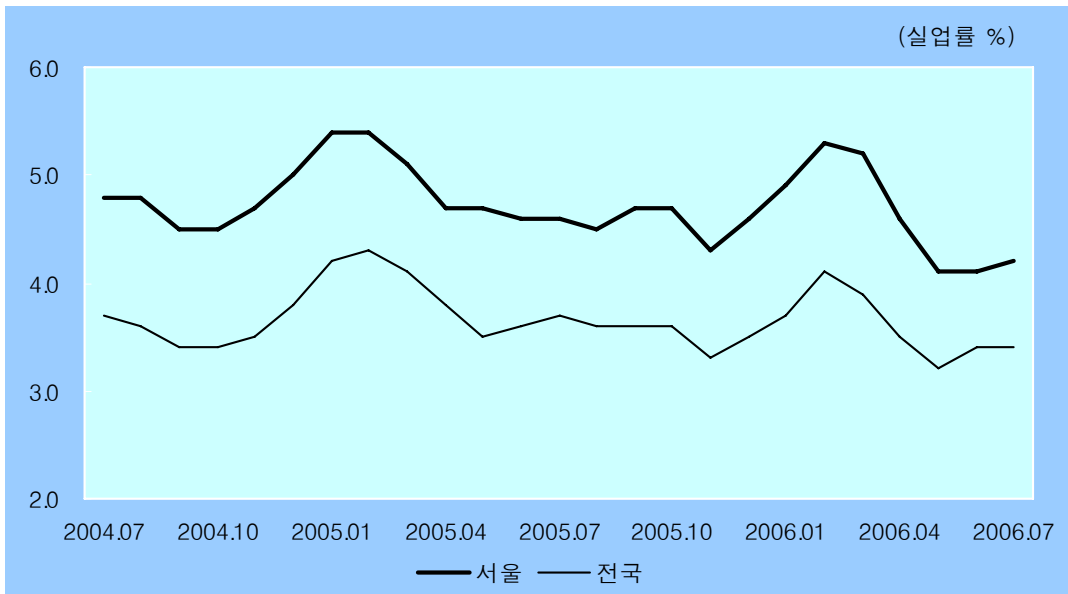
- 2006년 7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4.2%(실업자는 218천명)로 지난해 7월 대비 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7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의 실업률(3.4%) 보다 0.8%p 상회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7월 평균 실업률 4.4% 보다는 0.2%p 낮음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업자 중 남자는 60.5%, 여자는 39.5%임
- 남자의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7월 대비 0.6%p(실업자 증감률 -10.5%)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실업률은 4.1%로 지난해 7월 대비 0.2%p(실업자 증감률 -17.9%) 감소하여 남자의 실업률 감소폭이 3배 높게 나타남

〈표〉 2006년 7월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3.7	4.1	3.9	3.5	3.2	3.4	3.4	
서울	4.6	5.3	5.2	4.6	4.1	4.1	4.2	
성 별	남자	4.9	5.6	5.4	5.0	4.3	4.3	4.3
	여자	4.3	4.9	4.8	4.0	3.8	3.8	4.1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Box〉 서울지역 직장인 노후대책

▶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지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2006년 7월 26일에서 28일에 걸쳐 5일 동안 서울 소재 직장인 20-50대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실시 결과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은 55.1%로 조사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 50대는 절반 이상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나 20대는 38.4%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음

〈표 1〉 퇴직 이후를 대비한 경제력 준비 여부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준비하고 있음	38.4	55.0	67.2	62.6	55.1
준비 못하고 있음	55.8	42.5	32.1	37.4	42.4
생각 안해 봄	5.8	2.5	0.7	-	2.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노후자금 마련 수단 및 자금규모

-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주 수단은 부동산보다는 저축이나 연금 등의 소득으로서 저축·이자소득(34.2%), 개인연금(22.7%)m 국민연금(17.7%), 부동산 임대료(11.8%), 퇴직금(6.8%), 주식(4.3%), 사회 및 자녀보조(1.3%), 상속재산(1.2%)순으로 나타남
- 노후를 대비한 자금규모가 3억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80%, 1억 이상 3억 미만은 17.4%, 1억 미만은 2.6%임
- 3억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직장인 중 3억 이상 4억 미만이 30.0%, 4억 이상 5억 미만이 14.8%, 5억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2%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보도자료 (2006년 8월 8일)

| 물 · 가 |

서울 소비자 물가 지난 6월 대비 0.1% 상승

■ 전국 소비자 물가 0.2% 상승

- 2006년 7월중 전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 대비 0.2% 상승하여 지난달에 비해 0.4%p 상승함
- 지난 4, 5월에 이어 채소류(-12.7%), 과일(-0.8%) 등의 출회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상승과 함께 지난 5월에는 상승하였던 유류, 금반지, 컴퓨터 본체 등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됨

■ 서울 소비자 물가 0.1% 상승

- 2006년 7월중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 대비 0.1% 상승하였으나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0.1%p 낮음
- 지난해 7월에도 물가가 상승세임을 감안할 때 이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식료품(-0.6%), 피복 및 신발(-0.1%)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열·수도(2.4%), 교통·통신(0.3%)은 지난 5월에 비해 상승함

■ 상품부문 하락, 서비스 부문 상승

- 2006년 7월중 상품부문은 농축수산물(-1.4%)은 하락하고, 공업제품(0.3%)은 소폭 상승함에 따라 지난 6월 대비 0.2% (전국:0.0%) 하락함
- 2006년 7월중 서비스 부문은 지난 6월 대비 0.3%(전국: 0.4%) 증가하였으며 도시가스 등의 공공서비스 0.9% 상승이 기여함

■ 서울 생활물가 포함, 신선식품 하락

- 2006년 7월중 생활물가는 지난 6월 대비 포함세0.0% (전국:0.2%)를 유지함
- 2006년 7월중 신선식품은 과일류(-14.6%)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1.4%(전국:-1.2%)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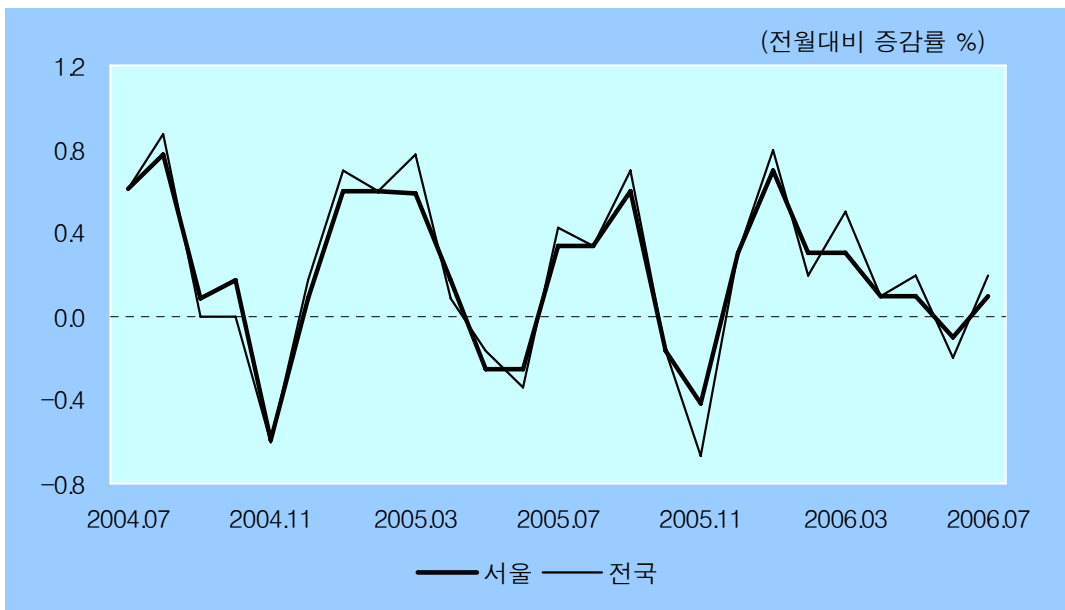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비	전국	0.4 (2.5)	0.2 (2.3)	0.5 (2.0)	0.1 (2.0)	0.2 (2.4)	-0.2 (2.6)	0.2 (2.3)	
	서울	0.3 (2.3)	0.3 (2.3)	0.3 (2.0)	0.1 (1.9)	0.1 (2.3)	-0.1 (2.4)	0.1 (2.2)	
	상품 성질별	상품	0.6 (3.5)	0.2 (2.5)	-0.5 (1.5)	0.2 (1.2)	0.1 (1.8)	-0.2 (2.4)	-0.2 (1.6)
		서비스	0.2 (1.5)	0.3 (2.1)	0.8 (2.3)	0.1 (2.5)	0.0 (2.4)	0.1 (2.4)	0.3 (2.6)
	생활물가	0.7 (3.9)	0.4 (3.7)	0.6 (3.1)	0.1 (2.9)	-0.2 (3.2)	-0.2 (3.5)	0.0 (2.8)	
	신선식품	0.3 (2.5)	0.5 (2.7)	-1.5 (-0.3)	-0.5 (-2.9)	-4.3 (-3.1)	-5.1 (-2.3)	-1.4 (-3.9)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 유통수익률 하락

■ 국고채 유통수익률 하락

- 2006년 7월중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월 초반 콜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승(7월 10일: 4.95%)하였으나, 월 후반에는 국제정세의 불안, 국내외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하락하여 7월말 현재 4.83%를 기록함
- 2006년 7월중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국고채 수익률의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7월말 현재 5.15%를 기록함
- 2006년 7월중 회사채(공모)의 경우 장기자금 수요 저조, 일부 기업의 선차환 발행 등으로 순상환을 지속함(2006년 6월: -0.8조 원 → 7월: -0.6조 원)

■ CD 유통수익률 상승세 지속

- 2006년 7월중 CD(91일) 유통수익률은 월 중반 4.64%(7월 14일)로 상승한 이후 7월말 현재 같은 수준을 유지함
- 2006년 7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4.22%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6월 8일)의 콜금리 목표 4.2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장·단기 금리차 축소

- 2006년 7월중 장·단기 금리차는 콜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장기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지난 6월말 0.71%p에서 7월말 현재 0.61%p까지 축소됨

■ 7월중 KOSPI 보합세 유지

- 2006년 7월중 KOSPI 지수는 북한 미사일 발사, 국제유가 최고가 경신,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월 중반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은행업종을 비롯한 일부 기업의 실적개선이 발표되면서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7월말 현재 지난 6월 대비 0.20% 증가한 1,297.8로 마감함
- 2006년 7월중 KOSDAQ 지수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과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 지속 등에 기인하여 지난 6월 대비 5.59% 하락한 557.7를 기록함

■ 원/달러 환율 지난 6월 대비 소폭 상승

- 2006년 7월중 원/달러 환율은 중동지역의 불안 고조에 따른 달러화 선호 등으로 월 중 상승하는 모습(7월 18일: 958.7원)을 보였으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7월말 현재 955.2원을 기록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전월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5일		
금리	국고채(3년)	4.93	4.81	4.72	4.92	4.83	4.75	-0.09
	회사채(3년, AA-)	5.25	5.08	5.00	5.20	5.15	5.08	-0.05
	CD(91일물)	4.27	4.36	4.36	4.59	4.64	4.69	0.05
	콜금리(1일)	3.97	3.97	3.96	4.21	4.22	4.49	0.01
	장·단기 금리차 ¹⁾	0.96	0.84	0.76	0.71	0.61	0.26	-
주 가	KOSPI ²⁾	1,359.6	1,419.7	1,317.7	1,295.2	1,297.8	1,329.4	0.20
	KOSDAQ ²⁾	665.2	685.4	630.5	590.7	557.7	556.4	-5.59
환율 (W/US\$) ²⁾	971.6	943.4	945.6	948.9	955.2	961.9	0.66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 - 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7월중 은행의 가계대출 지난 6월 대비 증가폭 크게 축소

- 2006년 7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2.5조 원 늘어나 지난 6월(+4.3조 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함
-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하순 금감원의 리스크관리 지도 강화로 억제되었던 대출실행이 이월된 데 기인하여 지난 6월(+2.2조 원)과 비슷한 증가폭을 기록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기상 악화 및 휴가비 지급 등의 영향으로 미미한 증가를 보임 (2006년 6월: +2.2조 원 → 7월: +301억 원)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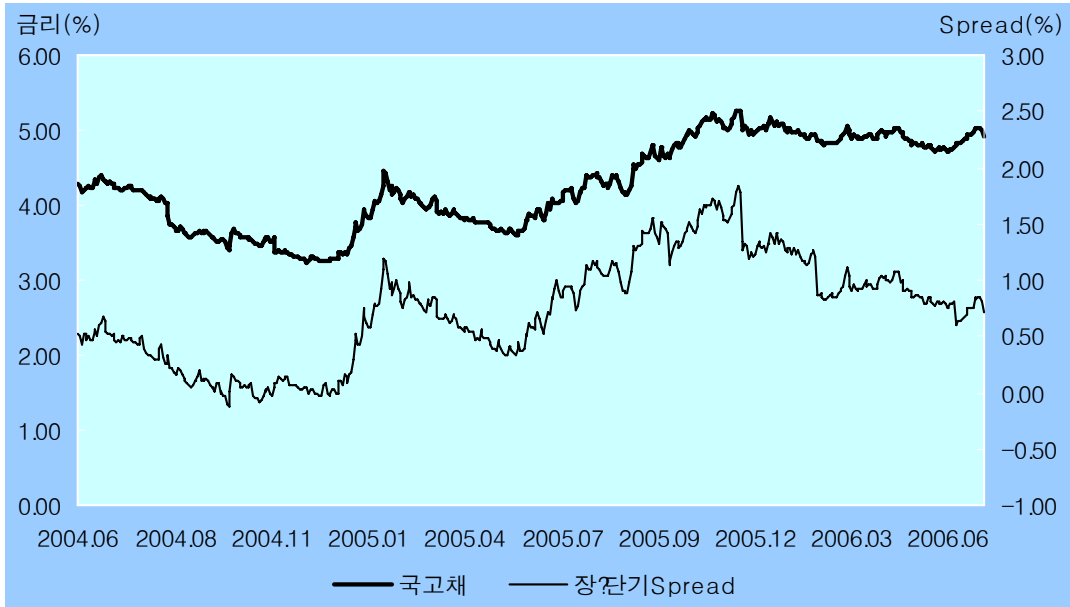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월말잔액		전월비
		7월	5월	6월	7월	2006년		
						6월	7월	
가계대출 ¹⁾	2.4	4.6	4.3	2.5	322.3	324.9	0.81	
주택담보대출 ²⁾	2.1	3.1	2.2	2.3	200.8	203.3	1.25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0.3	1.4	2.2	0.0	120.1	120.1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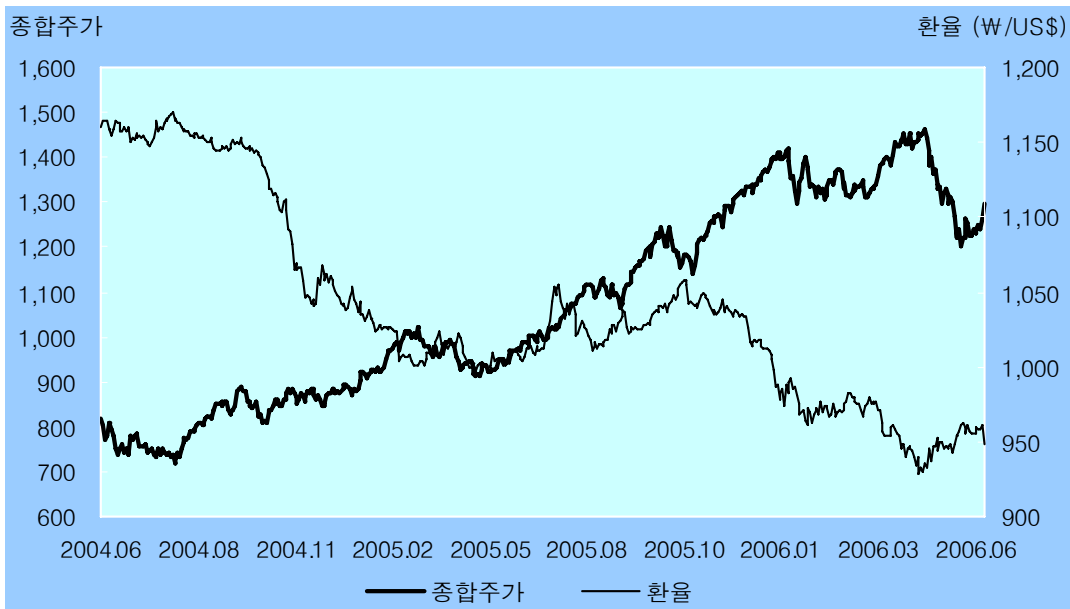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창 · 업 · 동 · 향 |

서울 제조업 부문 신설법인 수 큰 폭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큰 폭 감소

- 2006년 7월중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3,824개로 지난 6월 대비 14.6%(655개) 감소함
- 업종별로 지난 6월 대비 제조업(-30.6%), 서비스업(-12.8%),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 사업(-1.9%)의 모든 업종에서 하락세를 보임

■ 서울의 신설법인 수 큰 폭 감소

- 2006년 7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54개로 지난 6월 대비 14.0%(237개) 감소하고, 전국대비 비중은 지난 6월(40.3%) 보다 감소한 38.0%로 나타남
- 업종별로 건설 및 설비업은 지난 6월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지난 6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3개월 연속 감소세

- 2006년 7월중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지난 6월 대비 10.9% 감소한 1,175개임
- 이는 부동산 및 임대업(0.8%)을 제외한 서비스업 모든 업종에서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난 6월(78.0%) 보다 소폭 증가한 80.8%로 나타남
- 서울의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140개로 지난 6월 대비 큰 폭(-43.1%)으로 감소하고, 건설 및 설비업은 지난 6월 대비 9.5% 증가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5년	2006년				전월비			
	7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479	4,056	4,020	4,201	3,824	-377	(-655)	-9.0	(-14.6)
서울	1,851	1,618	1,655	1,691	1,454	-237	(-397)	-14.0	(-21.4)
서비스업	1,403	1,327	1,347	1,319	1,175	-144	(-228)	-10.9	(-16.3)
제조업	265	137	148	246	140	-106	(-125)	-43.1	(-47.2)
건설 및 설비업	173	154	157	126	138	12	(-35)	9.5	(-20.2)

주: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의 어음부도율 9개월 연속 같은 수준

■ 전국의 어음부도율 8개월 연속 같은 수준

- 2006년 7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8개월 연속 보합세를 유지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11개로 지난 6월(210개)과 비슷한 수준이며 2006년 상반기 월평균(213개) 보다는 적은 수준임
- 업종별로 서비스업(-12개)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9개)과 제조업(+6개)이 증가함

■ 서울의 어음부도율 9개월 연속 보합세 유지

- 2006년 7월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8개월 연속 보합세를 유지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71개로 지난 6월 보다 5개 감소하고, 전국의 부도업체 수 중 33.6%의 비중을 차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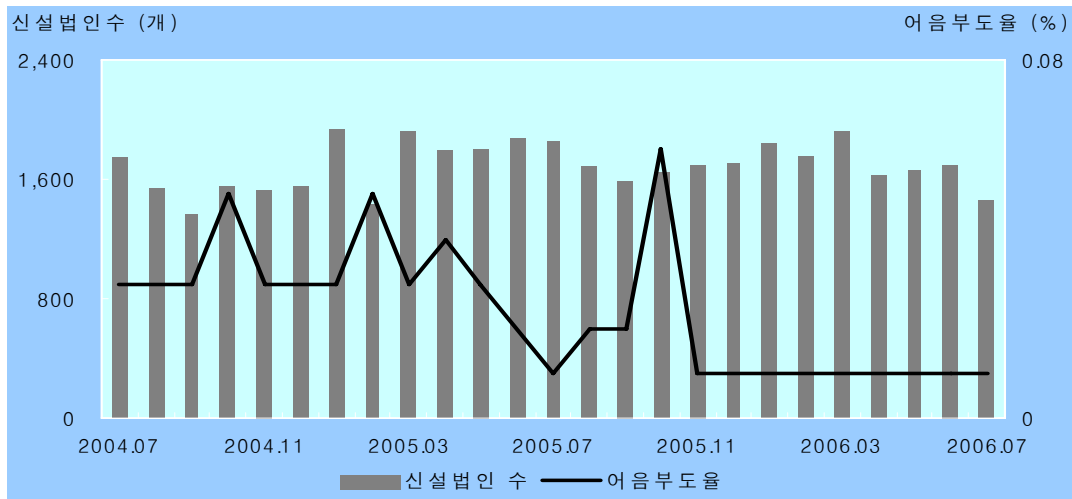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5년	2006년					전월비	
	7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전 국	어음부도율	0.02	0.02	0.02	0.02	0.02	0.0 (0.0)	-
	부도업체 수	248	235	189	210	211	1 (-37)	0.48 (-14.9)
서 울	어음부도율	0.01	0.01	0.01	0.01	0.01	0.0 (0.0)	-
	부도업체 수	95	79	59	76	71	-5 (-24)	-6.6 (-25.3)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소상공인 보증비중 3개월 연속 증가

■ 보증공급 지난 4,5월 수준으로 감소

- 2006년 7월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662건, 17,184백만 원으로 지난 6월 대비 건수 33.3%, 금액 39.4% 감소함
- 지난 6월중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보증공급 규모는 서울시 특례보증 종료되었던 지난 4,5월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건당 평균금액은 2개월 연속 감소추세를 보임

〈표〉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 원, %, %p)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비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건수	947	946	664	666	993	662	-285 (-331)	-30.1 (-33.3)
금액	21,251	21,442	19,005	20,183	28,352	17,184	-4,067 (-11,168)	-19.1 (-39.4)
건당평균금액	22.4	22.7	28.6	30.3	28.6	26.0	3.6 (-2.6)	3.6 (-2.6)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도·소매업 비중의 큰폭 증가

- 2006년 7월의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지난 6월에 비해 도·소매업의 비중(금액기준)만 8.9%p 증가하고, 나머지 업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감소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63 (9.5)	265 (40.1)	140 (21.1)	149 (22.5)	45 (6.8)	662 (100.0)
금액	2,278 (13.3)	7,176 (41.8)	2,982 (17.3)	3,169 (18.4)	1,579 (9.2)	17,184 (100.0)

주: ()안은 비율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비중 증가 지속

- 2006년 7월의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은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3개월 연속 증가하여 82.7%에 이르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대부분 소액의 이행보증으로서, 건수의 비중은 높아졌으나 금액의 비중은 전월에 비해 다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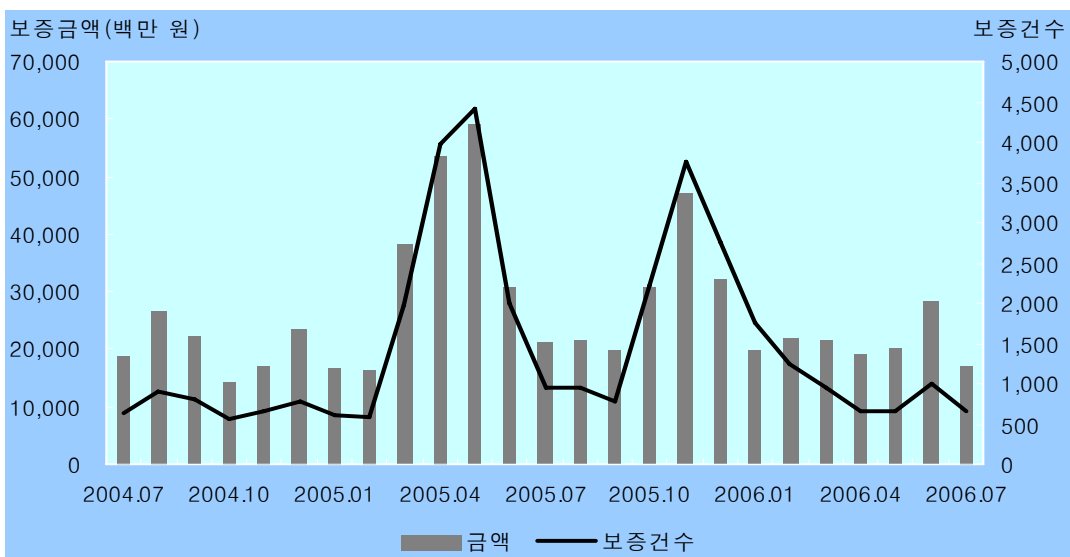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 %p)

구분		2006년				전월비증감
		4월	5월	6월	7월	
소상공인	건수	589 (88.7)	602 (90.4)	899 (90.5)	587 (88.7)	-312 (-1.8)
	금액	13,580 (71.5)	15,049 (74.5)	22,491 (79.3)	14,214 (82.7)	-8,277 (3.4)
소기업	건수	55 (8.3)	53 (7.9)	78 (7.9)	41 (6.2)	-37 (-1.7)
	금액	3,297 (17.3)	4,190 (20.8)	4,248 (15.0)	2,434 (14.2)	-1,814 (-0.8)
중기업	건수	20 (3.0)	11 (1.7)	16 (1.6)	34 (5.1)	18 (3.5)
	금액	2,128 (11.2)	944 (4.7)	1,613 (5.7)	536 (3.1)	-1,077 (-2.6)
합계	건수	664 (100)	666 (100)	993 (100)	662 (100)	-331 -
	금액	19,005 (100)	20,183 (100)	28,352 (100)	17,184 (100)	-11,168 -

주: ()안은 비율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 수출 및 수입 지난해 7월 대비 증가

- **전국의 수출 지난해 7월 대비 12.0% 증가**
 - 2006년 7월중 전국의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 및 환율하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비 12.0% 증가한 26,018백만 불로 고유가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 및 물량 확대로 원료 및 연료(60.9%)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전국의 수입 지난해 7월 대비 18.2% 증가**
 - 2006년 7월중 전국의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가스 등 에너지류(28.3%)의 수입증가와 승용차, 가전제품 등 소비재(17.6%)의 수입증가로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 지난해 7월 대비 18.2% 증가한 25,421백만 불을 기록함
- **서울의 수출 지난해 7월 대비 10.4% 증가**
 - 2006년 7월중 서울의 수출은 2,147백만 불로 지난해 7월 대비 10.4% 증가함
 - 성질별로 자본재(21.8%), 원자재(10.1%)가 증가한 반면, 소비재(-3.1%)는 감소하고, 국가별로 미국(3.7%), 중국(0.3%) 등은 증가한 반면, 일본(-7.5%), 홍콩(-2.6%) 등은 감소함
- **서울의 수입 지난해 7월 대비 15.0% 증가**
 - 2006년 7월중 서울의 수입은 4,788백만 불로 지난해 7월 대비 15.0% 증가함
 - 성질별로 자동차(45.5%), 의류(31.4%) 등의 소비재(23.4%), 석유제품(65.0%) 등의 원자재(17.3%)와 반도체(24.6%), 컴퓨터(17.4%) 등의 자본재(8.3%) 모두 증가하고, 국가별로 의류, 컴퓨터가 높은 증가세를 보인 중국(27.9%), 일본(10.9%), 미국(7.9%) 등이 증가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비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3,236	26,848	25,595	27,920	27,961	26,018	2782	(-1943)	12.0	(-6.9)
	수입	21,509	25,772	24,320	26,060	25,954	25,421	3912	(-533)	18.2	(-2.1)
서울	수출	1,944	2,194	2,012	2,099	2,232	2,147	203	(-85)	10.4	(-3.8)
	수입	4,165	4,922	4,682	4,838	4,980	4,788	623	(-192)	15.0	(-3.9)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무역협회

<Box> 서울시, 2006년 상반기중 금융기관대출금

- ▶ 2006년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2005년 6월말 대비 증가폭 확대
 - 2006년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잔액은 327조 8,397억 원(전국의 38.4%)으로, 상반기중 17조 847억 원(+5.5%) 증가하여 지난해 하반기(+14조 7,276억 원, +5.0%)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됨(지난해 상반기: +11조 1,105억 원, +3.9%)
 - 이는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이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도 꾸준히 증가한데에 기인함
 - *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 ▶ 2006년 6월말 현재 서울지역 예금은행 대출금 잔액, 2005년 6월말 대비 증가폭 축소
 - 2006년 6월말 현재 서울지역 예금은행 대출금잔액은 274조 1,912억 원(전국의 42.0%)으로, 상반기중 11조 3,646억 원(+4.3%) 증가하여 지난해 하반기(+11조 7,625억 원, +4.7%)보다 증가폭이 다소 축소됨
- ▶ 2006년 6월말 현재 서울지역 비예금은행 대출금 잔액, 2005년 6월말 대비 증가폭 축소
 - 2006년 6월말 현재 서울지역 비예금은행 대출금잔액은 53조 6,485억 원(전국의 26.8%)으로, 상반기중 대출증가세(+5조 7,201억 원, +11.9%)가 종합금융회사, 은행신탁 등의 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면서 지난해 하반기(+2조 9,651억 원, +6.6%)보다 확대됨

<표> 서울지역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잔액 ²⁾				반기중 증감액		
		2004년말	2005년 6월말	2005년말	2006년 6월말	2005 상반기	2005 하반기	2006 상반기
예금은행	전국	565,655.4	586,738.7	613,922.8	652,960.9 (6.4)	21,083.3	27,184.1	39,038.1
	서울	243,960.7 <43.1>	251,064.1 <42.8>	262,826.6 <42.8>	274,191.2 <42.0> (4.3)	7,103.4	11,762.5	11,364.6
비은행 금융기관	전국	170,183.6	179,111.8	190,070.9	199,901.9 (5.2)	8,928.2	10,959.1	9,831.0
	서울	40,956.2 <24.1>	44,963.3 <25.1>	47,928.4 <25.2>	53,648.5 <26.8> (11.9)	4,007.1	2,965.1	5,720.1
계	전국	735,839.0	765,850.5	803,993.7	852,862.8 (6.1)	30,011.5	38,143.2	48,869.1
	서울	284,916.9 <38.7>	296,027.4 <38.7>	310,755.0 <38.7>	327,839.7 <38.4> (5.5)	11,110.5	14,727.6	17,084.7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2) 원화대출금 기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어음매입 포함함

3) ()안은 전반기말 대비 증감률, < >안은 전국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 ▶ 2006년 6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서울지역 예대출 2005년 말 대비 하락
 - 2006년 6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서울지역 예대출(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4%p 하락한 55.8%를 기록함

<표> 서울지역 예금은행 예대출^주 추이

	2004년말	2005년 6월말	2005년말	2006년 6월말	반기중 증감액		
					2005 상반기	2005 하반기	2006 상반기
전국	81.0	80.9	81.7	82.5	-0.1	0.8	0.8
서울	58.6	58.3	58.2	55.8	-0.3	-0.1	-2.4

주: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자료: 한국은행

| 건 · 설 · 경 · 기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액 지난해 6월 대비 증가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6월 대비 증가

- 2006년 6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14,132천²로 이 중 주거용은 38.1%, 상업용은 27.2%, 공업용은 10.5%이며, 지난해 6월 대비 64.9% 증가함
- 이는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 6월 대비 소폭(-2.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132.2%) 및 주거용(49.8%)의 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6월 대비 증가

- 2006년 6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증가세에 이어 서울의 건축허가면적도 지난해 6월 대비 105.1% 증가함
- 이는 지난해 6월에 비해 전체건축허가면적의 55.6%를 차지하고 있는 상업용 건축면적(364천²→1,164천²)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06년 6월중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6월에 비해 64.3%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연립(-34.2%)을 제외하고 아파트(102.8%) 및 단독(6.3%)은 증가함
- 2006년 6월중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6월에 비해 121.6% 증가하였으며, 공업용(-91.0%)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함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²,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8,569	7,439	10,787	9,247	9,313	14,132	64.9	(51.7)	
서울	1,021	389	774	1,427	858	2,094	105.1	(144.1)	
주거용	소계	300	107	146	303	249	493	64.3	(98.0)
	단독	16	9	13	13	14	17	6.3	(21.4)
	연립	73	42	58	38	84	48	-34.2	(-42.9)
	아파트	211	55	74	252	151	428	102.8	(183.4)
비주거용	소계	722	283	628	1,124	609	1,600	121.6	(162.7)
	상업	364	182	347	878	304	1,164	219.8	(282.9)
	공업	188	6	5	8	151	17	-91.0	(-88.7)
	문교/사회	71	88	203	122	149	243	242.3	(63.1)
기타	99	7	74	116	5	176	77.8	3420.0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 포함, 기타는 공업용, 공공용 포함,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중구, 서초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건축허가면적 높음

- 2006년 6월중 서울 건축허가면적은 중구(457천㎡), 서초구(267천㎡), 강서구(255천㎡), 강남구(254천㎡), 강동구(246천㎡)서 100천㎡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의 건설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음
- 건축 허가면적이 높은 구의 주거용 비율을 살펴보면 강동구 63.7%, 서초구 47.7%, 강남구 27.7%, 강서구 20.7%, 중구 0.2%임
- 반면 광진구(9천㎡), 은평구(11천㎡), 도봉구(11천㎡)에서는 건축허가면적이 낮게 나타남

■ 6월중 서울의 건설수주액 증가

- 2006년 6월중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2조 5,901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대비 전국이 7.7% 감소한 반면에 서울은 101.2%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의 12.8%에 비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1%p 증가함
- 재건축, 재개발, 상가 학교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는 143.0% 증가하였고, 신규주택, 기타건축, 조경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17.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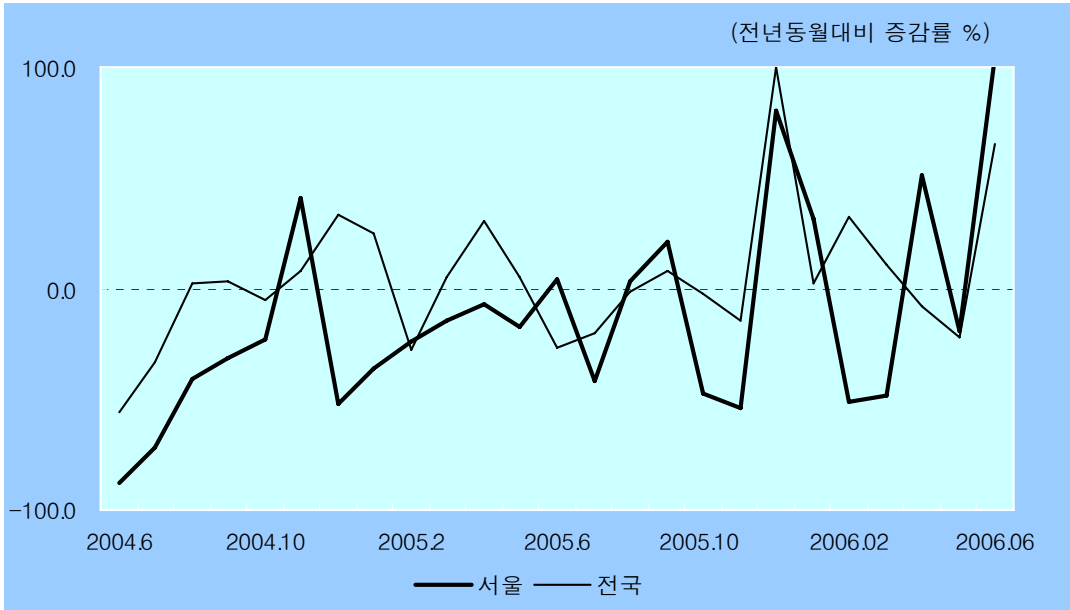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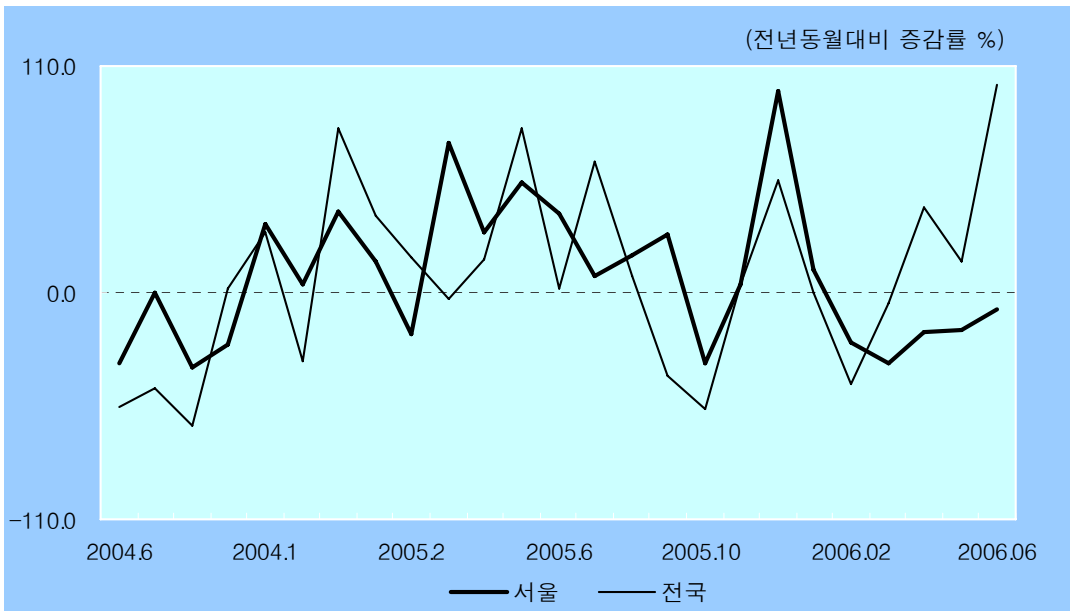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10,033.0	4,543.2	6,065.7	5,291.3	7,135.1	9,263.0	-7.7 (29.8)	
서울	1,287.6	410.7	1,146.2	1,728.9	1,330.3	2,590.1	101.2 (94.7)	
발주 자별	공공	342.3	21.1	192.8	447.2	362.1	400.9	17.1 (10.7)
	민간	900.5	389.6	945.7	1,280.4	968.1	2,188.3	143.0 (126.0)
공종 별	건축	1,263.0	388.2	976.1	1,721.9	1,324.2	2,574.8	103.9 (94.4)
	토목	24.0	20.1	168.8	5.3	5.9	12.9	-46.3 (118.6)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가 · 격 |

서울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5월 이후 최저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지난 6월 대비 0.2% 상승

- 2006년 7월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6월 대비 0.2% 상승하여 상승폭이 0.3%p 둔화됨
- 정부의 각종 규제강화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매수 심리의 위축과 장마철 비수기라는 요인에 의해 전국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지난 6월 대비 0.3% 상승

- 2006년 7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6월 대비 0.3% 상승하여 지난 5월 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함
- 이러한 상승폭 둔화의 원인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금리인상에 따른 강남의 주택매매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 둔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세부지역별로 강남은 0.3%, 강북은 0.4% 상승하여 강북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강남을 0.1%p 앞질렀으며 이는 강북 재개발 관련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정부규제가 강북에 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 주택유형별로 보면 지난 5개월(2월-6월) 평균 아파트 상승률 1.6%와 비교할 때 아파트의 가격상승폭(0.3%)은 크게 둔화된 반면 뉴타운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단독주택(0.5%)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0.8	0.5	0.6	0.9	1.0	0.5	0.2	
서울	1.4	0.8	1.2	1.5	1.5	0.7	0.3	
아파트	1.9	1.1	1.8	2.3	2.0	0.6	0.3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7	0.3	0.5	0.7	0.7	0.6	0.4
	강남	2.0	1.2	1.8	2.4	2.2	0.8	0.3

주: 단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성북구, 성동구, 용산구, 은평구

- 2006년 7월중 강북지역을 구별로 보면 시범 뉴타운 지역인 성북구(1.4%)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성동구(0.8%), 용산구(0.7%), 은평구(0.6%)에서 강북 주택 매매가격의 평균 상승률(0.4%)을 상회함
- 반면 지난 6월에 미미한 상승률(0.1%)을 나타냈던 노원구(0.0%), 종로구(0.0%), 중랑구(0.0%)는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함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강서구, 동작구

- 2006년 7월중 강남지역을 구별로 보면 지난 6월에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던 강서구(1.2%), 동작구(1.1%)는 7월에도 1.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영등포구(0.8%), 양천구(0.5%)는 강남 평균주택매매가격(0.3%)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냄
- 반면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서초구는 지난 6월과 동일한 주택매매가격을 나타냈으며, 송파구는 지난 6월에 비해 0.2% 하락함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2006년 7월중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6월 대비 0.3% 상승하여 지난 4월(2.3%)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줄어듦
- 강남, 강북 모두 0.3%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나타내며, 지난 6월에 이어 강서구(1.6%), 동작구(1.0%), 성동구(1.0%)의 상승률이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성북구(-0.2%), 강남구(-0.2%), 강동구(-0.2%), 서초구(-0.2%), 송파구(-0.2%), 중랑구(-0.1%)는 지난 6월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함
- 2006년 6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지난 6월 대비 0.4% 상승한 1,481만원으로 0.5%p 하락함
- 7월중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동구이며, 평당 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의 1/2 이하인 구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중랑구임
- 중구(1.9%), 광진구(1.6%), 은평구(1.6%), 구로구(1.4%), 마포구(1.3%), 강서구(1.3%), 성북구(1.3%)는 지난 6월 대비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평균 증가율(0.4%)을 3배 이상 상회함
- 반면 강동구(-0.2%), 양천구(-0.2), 송파구(-0.1%)는 지난 6월에 비해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하락함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지난 6월 대비 0.1% 상승

- 2006년 7월중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6월 대비 0.1% 상승하여 지난 3월(1.2%) 이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됨
- 장마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수요 감소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안정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가격상승을 주도한 주택가격매매와는 달리 단독주택(-0.1%)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연립주택(0.3%)이 선호되면서 가격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지난 6월 대비 0.2% 상승

- 2006년 7월중 서울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6월 대비 0.2% 상승하여 전국과 마찬가지로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감소됨
- 지난 6월에 이어 7월 중 강남과 강북의 주택전세가격은 동일하게 0.2% 소폭 상승함에 따라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유지됨
- 지역별로 지난 4, 5월에 이어 강서구, 양천구 등의 서울 서남권 지역과 함께 광진구, 등 동북 지역이 상승률이 두드러짐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 연립 모두 동일하게 0.2% 상승함

■ 강남·강북 주택전세가격 증가율 0.2%로 동일

- 강북의 주택 전세가격은 광진구(0.5%), 성동구(0.4%), 은평구(0.4%)가 서울 평균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0.2%)을 2배 이상 상회함
- 반면 광진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는 서울 평균 주택전세가격 상승률(0.2%)보다 낮은 0.1%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북구는 보합세를 유지하며, 강북구(-0.1%), 중구(-0.1%)는 하락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0.1	0.4	0.7	0.6	0.4	0.1	0.1
서울	0.0	0.7	1.2	0.8	0.5	0.2	0.2
아파트	0.3	0.9	1.5	1.1	0.6	0.2	0.2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0.3	0.8	1.0	0.6	0.4	0.2	0.2
강남	0.3	1.0	1.4	1.0	0.6	0.2	0.2

주: 단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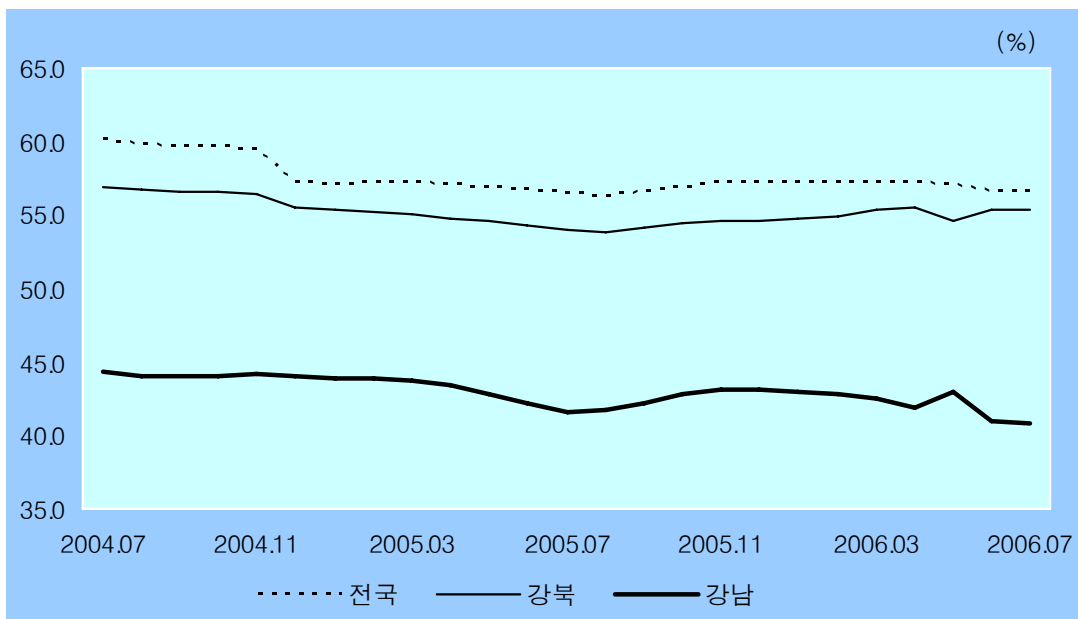
- 강남의 주택 전세 가격은 강남구(0.6%), 강서구(0.4%)가 서울 평균 주택전세가격 상승률(0.2%)을 2배 이상 상회함
- 반면 강동구, 영등포구는 보합세를 유지하며 서초구(-0.2%), 송파구(-0.1%)는 하락세를 나타냄

■ 아파트 전세가격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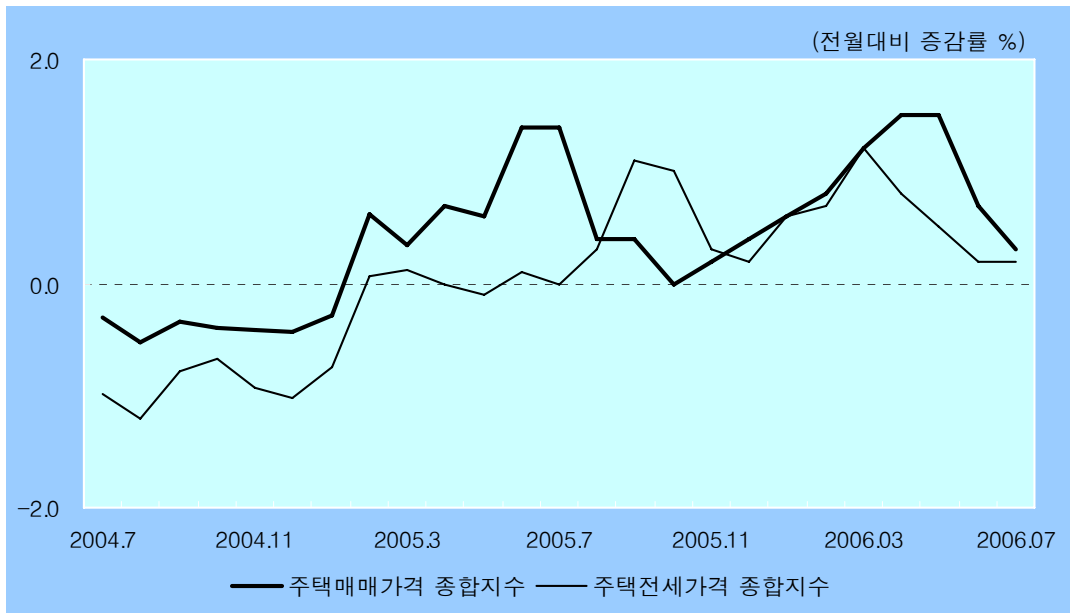
- 2006년 7월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6월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강북은 0.3%, 강남은 0.1% 상승하여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0.2%p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구별로는 광진구(0.6%), 마포구(0.6%), 강서구(0.5%), 금천구(0.5%), 동작구(0.5%)가 0.5%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종로구(-0.2%), 서초구(-0.2%), 강동구(-0.1%), 강북구(-0.1%), 중구(-0.1%), 송파구(-0.1%)는 하락세를 나타냄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국에서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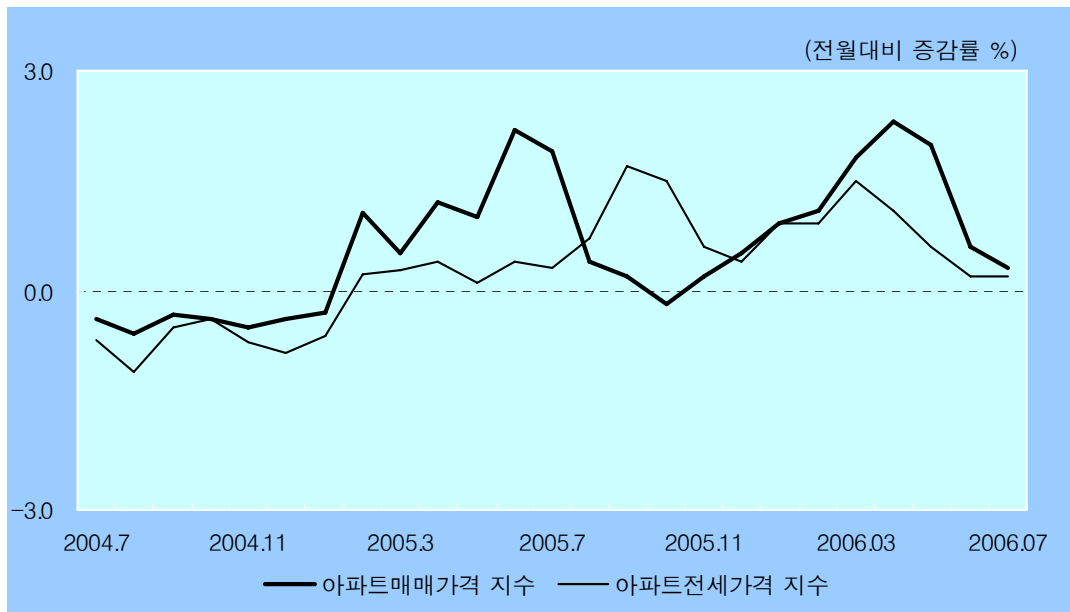
- 2006년 7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7.4%로 전국 평균 56.6%를 9.2%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줌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55.3%, 강남은 40.8%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6월에 비해 강북은 동일하며 강남은 0.1%p 소폭 하락함
- 이는 강남이 강북에 비해 사용가치에 비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